

국립무형유산원 10주년 '무형, 미래, 같이'

개막공연 20일 개최... 우주·무형유산 결합 다섯 가지 무대로 구성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오는 20일 오후 4시 알수마루 대공연장에서 2023년 개막공연 '무형, 미래, 같이'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개막공연 주제 '무형, 같이, 미래'에는 무형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무형유산 보유자부터 젊은 전승자 및 대를 잇고 있는 전승자 가족이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펼친다.

이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우주와 무형유산을 결합한 다섯 가지 무대로 구성했다.

첫 무대는 거문고 산조 이수자이자 국립창극단 단원인 최영훈 전승자 가족이 출연해 판소리 '쑈대머리'를 해금, 소리, 거문고 합주로 연주한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연등회의 아름다운 영상과 파키스탄 전통음악, 우리나라 민요를 현대적 어법으로 해석해 연주하는 'TAAL'의 음악이 어우러진 실험적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예 종목인 '택견' 공연이 준비돼 있다. 현악기인 철현금과 타악기인 운라를 연주하는 한솔임의 음악에 맞춰 택견 보유자 정경화, 택견 보존회와 어린이 택견 전승자들이 출연해



월드뮤직그룹 'TAAL'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택견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은 전남무형문화재인 조도맞배노래 조오환 보유자와 딸 조유아(국립창극단 단원), 조도맞배노래 보존회 회원들이 선사하는 흥겨운 조도맞배노래와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진도옛타령 공연, 밴드 '악단광칠'의 공연이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막공연은 창극 '정년이', 젊은 소리꾼들의 참신한 소리관 '절창'으로 주목받고 있는 남인우 연출가가, 사회는 부부소리꾼

인 이소연(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이광복 씨가 각각 맡는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현장 관람이 어려운 사람은 네이버 TV(https://tv.naver.com/nihc)로도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물폭탄 터지면 웃음꽃 피네요"

군산예술의전당, 난버벌 퍼포먼스팀 '아크로부포스' 초청 버스킹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난버벌 퍼포먼스팀 '아크로부포스'를 초청해 즐겁고 스틸 넘치는 야외공연을 오는 14일 어린이공연장 야외광장과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펼친다.

난버벌 퍼포먼스팀 '아크로부포스'는 비언어적 신체극과 코미디로 지난 2005년부터 7개의 쇼를 만들었으며, 빅애플 서커스(Big Apple Circus)에서 헤드라인을 장식, 다양한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28개국 이상에서 공연하는 실력파팀으로 군산에서는 처음 방문해 공연하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아크로부포스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사랑받은 대표작 '워터밤'을 진행한다. '워터밤'은 난버벌 퍼포먼스로 드라마틱한 오페라 음악을 배경으로 100개의 물중선 결투를 관람객을 참여시켜 몰입도를 높인 버스킹으로 물중선이 터질 때마다 관객들의 웃음도 함께 터지는 스틸 만점 공연이다.

한편, 워터밤 공연은 전석 무료 공연으로 오는 14일 11시 어린이 공연장야외광장, 오



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총 2회 진행하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문화시민 예술로 하나되리 '익산 예술제' 개최

11~18일 지역 예술인·지역민 어우러진 예술 한마당 다채롭게 진행

익산 전역에서 지역 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문화의 장인 '제55회 익산 예술제'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열린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지회(회장 김영규)가 주최하는 익산예술제는 '익산 문화시민 예술로 하나되리'라는 주제로 배산체육공원과 슬리문화예술회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사)한국예총 익산지회 산하 지역 예술인 8개 협회에서 준비한 국악, 무용, 음악, 연극, 연예협회 등 공연과 문인, 미술, 사진작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전시가 펼쳐진다.

먼저 12일 저녁 7시에는 자매도시 경주예총의 개막축하 공연과 무용, 국악협회 주관으로 '익산무용제와 풍류' 개막공연이 시작된다. 부대행사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공예 무료체험'이 진행된다.

13일 슬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연극 '이웃집 쌀뿔'이 공연되며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힐링콘서트'가 진행된다. 17일에는 슬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3 익산 실

내악 Festival'이 공연된다.

전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슬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사진작가협회 제42회 회원전 및 익산 전국사진공모전', '문인협회 시화전'이 열린다. 또한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전시실에서 '52회 익산미술협회 회원전'을 갖는다. 아울러 경주예총과의 교류전 일환으로 경주예총 회원 사진, 문인, 미술 40작품이 익산사진, 문인, 미술협회 전시기간에 함께 합동으로 전시가 이루어진다.

김영규 익산예총 회장은 "이번 예술제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기간 열려 체육과 문화예술제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되었다"며 "익산예술제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익산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실력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공연전시로 익산시가 문화로 꽃피우고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인성교육 뮤지컬 공연 20일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오는 20일 오후 5시 강당에서 어린이 인성교육 뮤지컬 공연 '어서 박문수 출두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 역사 속 실존인물인 암행어사 박문수가 시간여행을 통해 학교폭력이 만연한 교실에 나타나 약하고 힘든 아이들을 돕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서로 존중하고 잘 어울려 지내는 방법과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선행 등을 신나는 창작 음악과 율동을 가미해 코믹하고 재미있게 풀어내 어린이들에게 공감능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훈적인 작품이다.

관람예약은 10일부터 15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입장인원은 최대 230명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제이휴비앤비 왕의지밀, 협약 체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9일 (유)제이휴비앤비 왕의지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한국관광공사가 전북지역에서 단 2곳만 선정한 코리아 유니크베뉴 시설인 전당과 (유)제이휴비앤비 왕의지밀이 지역 관광산업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전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와 (유)제이휴비앤비 왕의지밀 손의준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

를 바탕으로 협약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며, 숙박과 공연 관람을 연계한 상품 개발, 양 기관의 임직원 및 고객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전북지역 코리아 유니크베뉴 시설간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관광산업과 지역문화예술이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